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1. 2. 28 ~ 2021. 3. 13 제242호

▲ 디왈리 기간에 초에 불을 붙이고 있는 인도의 아이들. 제공: WMM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보라

인도의 빛의 축제인 디왈리 기간에 아이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밝은 빛을 많이 낼수록 신이 좋아한다고 하여 온 나라가 불을 밝히기에 전념한다. 악귀를 내쫓고 재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초와 폭죽을 사서 불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것을 넘어 마치 인생을 건 것 같은 전적인 투자다.

잠깐 불어오는 바람에도 쉬이 꺼질 초에 불을 붙이며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까.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 존재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찾아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 [GPNEWS]

정부와 언론의 편향자료와 왜곡, 교회 부정인식에 기여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나오는 데는 정부의 편향된 자료와 그것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올초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 응답비율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1년새 11%p가 하락한 수치다.

이렇게 교회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데는 정부의 편향된 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간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3115명이다.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사람은 5791명으로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비중은 전체 대비 7.7%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년 동안 전체 확진자의 45.4%가 집단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며 "그중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비중은 집단 감염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에서 일부만 떼어 부각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발표자료에는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비중을 언급하지 않고 항목별로 나눴다. 요양시설 13%, 의료기관 8%, 체육·여가시설과 교육시설 각 4% 등으로 표기해 종교시설발 감염 비중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의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한 언론도 교회의 부정적 인식 증가에 한몫했다. 지난달 21일자 '1년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45.4%…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라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상당수의 언론이 그대로 전달했다. 종교시설의 실제 감염 비중이 7.7%라는 사실을 검증하거나 보도한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뉴스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발표 당일인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기사 제목과 본문에 '종교시설 17%'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21건이었다. 반면 '종교시설 실제 비중', '교회 실제 비중'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기사는 지난해 9월 8일 처음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한 달은 다른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더 많았지만 언론 보도는 교회를 겨냥했다.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빅카인즈 분석 결과, 기사 제목과 본문에 '교회 집단 감염'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총 426건이었다. 타 종교는 118건, 35건 등에 머물렀다. 이처럼 교회발 감염사례만 주로 보도되면서 '종교시설'은 '교회'라는 등식을 정부와 언론이 만들어냈다.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6)

나의 '원형'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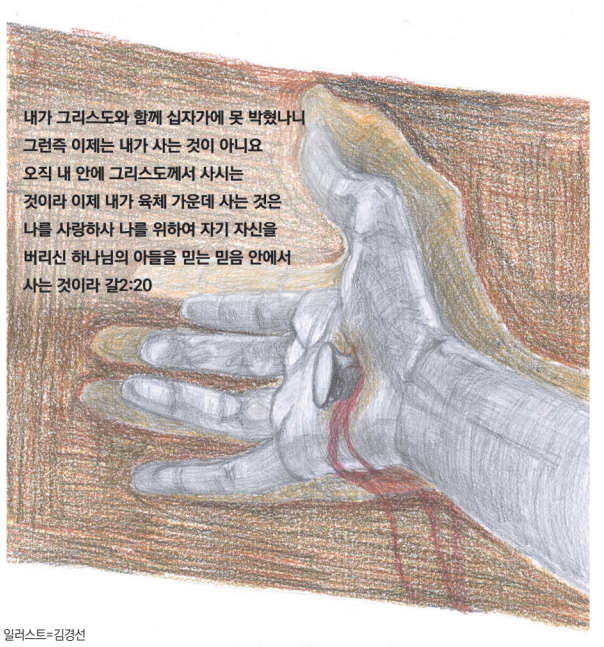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벗고 원하는 삶을 살라!" "감정을 다루고 잠재의식을 일깨워라!"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을 다스리는 법은 인간의 관심이고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아를 강화하라." "자아를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이 자아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체에 죄가 들어온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기에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습된 '잘못된 자아 인식'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 '병든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병든 자아를 바로 '나'라고 믿고, 그 자아가 상처 입을까봐 위로하고, 연민하고, 지독히 사랑하며 가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원형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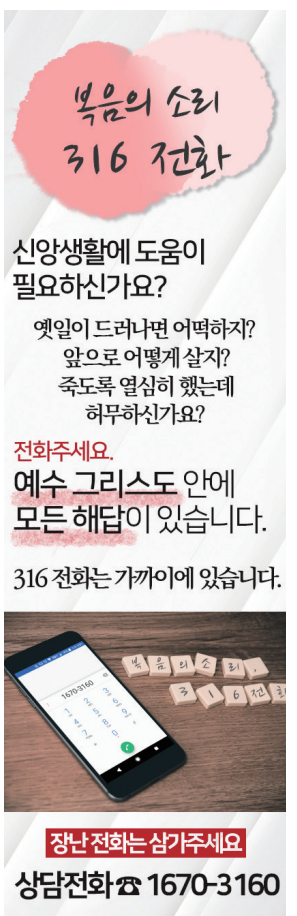
평생 나인양 붙들고 살아온 병든 자아가 내 실체가 아니라면, 나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만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분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원형을 되찾아 주신 것이 바로 '복음(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본심(本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정점은 독생자를 내주신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고, 바로 '내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바로 나의 병든 자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죄 된 병든 자아인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형생명입니다. 구원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에티오피아 교회, 격렬한 내전에도 남아서 지하교인 섬겨

▲ 에티오피아 전쟁 지역에 남아 이웃을 섬기는 티그레이 교회.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에티오피아 한복판에서 목회자와 교회가 철수하지 않고 남아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티그레이 인민 해방 전선(TPLF)과 에티오피아 정부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난 가운데, 현재 티그레이 지역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됐다.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티그레이 지역으로 출입하는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T 목사는 "이곳에는 인터넷도 은행도 없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불(전기)이 들어왔다."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어린이가 죽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쟁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많은 건물이 파괴됐으며 지금도 불과 10km 떨어진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T 목사와 교회는 에리트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 때문에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으로 피신한 에리트레아 지하교인을 섬겨왔다.

이에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에리트레아는 기독교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가혹한 핍박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려왔다."며 "우리는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는 많은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과 영적,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하며 오랫동안 동역해왔지만 이제 티그레이 지역은 난민들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유엔과 에티오피아 구호단체들이 이 지역의 많은 난민 캠프 가운데 두 곳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당하면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었다. T 목사와 교회는 오직 교회만 의지하는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을 염려하여 그곳에 계속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 대표는 티그레이 지역의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난민들이 혼란 속에 에리트레아 정부군에게 검거당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다양한 보도와 관련,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중이라면서 "난민들은 난민 캠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생필품을 공급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T 목사와 교회는 자신들을 돌보기도 벅찬 환경에서도 현재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난민들을 돌봐주고 있다."고 전했다. [GPNEWS]

UN, '성소수자 혐오단체' 목록 마련, 성혁명 주도

▲ 유엔기. 출처: pixabay

유엔이 '성소수자 혐오단체' 목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가족과인권센터(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는 "유엔인권사무소가 젠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에 정보 입력을 요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소수자 의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독립전문가(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인 빅터 마드리갈-볼로즈(Victor Madrigal-Borloz)가 발행한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각국의 행동 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마드리갈-볼로즈 보고관은 "특정 국가에서 성별이 2개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폭력과 차별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과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젠더'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다자간 및 지역 조직 내 국제인권기구와 절차와 국가 입법 정책 문서에서 젠더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 같은 내러티브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촉진하는 것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족과인권센터는 "유엔 성소수자 보고관은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가 '혐오 집단' 목록을 만든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며 "이 단체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회와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인류를 보호하는 보편적 권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1989년 소련 공산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해체하고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며, 아동권리 강화를 위해 세대를 분리시키고, 성도덕을 없애며 낙태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파워 엘리트 성혁명 전진기지로 역할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세계인구 감소라고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비는 주장한다. 세계가 다시 성경적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자.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中, 학생들 '신앙 공개' 강요… 대규모 종교 박해 우려

중국 당국이 최근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하도록 강요해, 대규모 종교 박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종교사무조례를 통해 기독교를 포함, 중국 내 모든 종교를 탄압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종교인의 행동강령과 의무를 담은 '종교인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중국의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공산정권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구합니다. 수감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중국에 십자가 승리를 이루어주십시오.

이란, 신앙 때문에 성도들 투옥… 고난 중인 18명 기도요청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투옥되고 있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16일 전했다. 무슬림에서 개종해 수감 중인 에브라힘 피루지(34세)를 비롯해, 수감 중인 18명의 기도를 요청했다.

바박 호세인, 메흐디 카티비, 베남 아클라기, 카말 나아마니안, 모하마드 바파다르, 샤루즈 에슬람두스트, 아브돌레자 알리 하그네자드, 호세인 카디바르, 칼릴 데간푸르, 메흐디 아크바리, 메흐디 루파바르, 마지드레자 소우잔치, 나세르 나바드 골타페, 유세프 나다르카니, 자만(사헤브) 파다, 모하마드-알리(야세르) 모사예브자데, 모하메드-레자(유한) 오미디, 에브라힘 피루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미얀마, 쿠데타 정부 혼란 극심… 반대 시위에 수만 명 결집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16일 본지 소식통에 의하면, 수도와 양곤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돌아다니며,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방화와 약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지시간 17일 양곤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선 각각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군부 독재 종식 등을 촉구했다.

미얀마가 속히 안정되고 온전한 민주화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시위 도중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현지 성도들과 사역자,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국제사회가 다 같이 움직여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네팔 교회, 박해와 가난에도 급성장

네팔의 교회들이 박해와 가난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6일 전했다. 실제로 네팔은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최근 심해진 네팔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오히려 신앙을 붙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을 듣고 오직 진리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의 실제 때문에 개종을 원한다고 하는 네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전하는, 살아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열방까지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역사해주십시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3월 1일 ~ 3월 13일

3월 1일 ~ 3월 6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3.1(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3.1~5(0~24시)**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정**)010-6280-4419, **3.1~5(10~20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3.1~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그 외 3교회 진행중.

3월 8일 ~ 3월 13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강**)010-8786-1538, **3.8~13(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3.9,11~13(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3.9~12(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3.11(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3.11~12(0~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둘람공동체(정**)010-3697-0641, **3.12(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3.12(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267-4365

월드포커스 |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

코로나가 가져온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 5가지

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1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최소한 3억 4000만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상존하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와 박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두드러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가 가져온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을 5가지로 정리했다.

▲ 풀라니족 유목민들의 공격으로 딸과 집을 잃은 나이지리아 크리스천 하자라투(Hajaratu).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1. 크리스천으로서 사회, 경제적 차별과 핍박 심화

팬데믹은 전 세계 수백만 크리스천들의 기존 사회적, 경제적, 종족적 취약성을 더 노출시키고 악화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해 종종 감추어졌던 차별적 압박과 억압의 태도들이 표면화됐다. 오픈도어가 긴급구호로 도운 인도의 1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의 80%가 정부의 식량 구호에서 배제된 경험을 보고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수 마일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식량을 얻기도 했다. 식량 배급을 받은 15%는 정부 또는 직장의 일용직에서 차별을 당했다. 팬데믹 이전에 한 정부 조사(2017~2018년)에 의하면, 다른 종교인보다 크리스천들의 실업률이 더 컸다. 따라서 식량구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가 절박한 궁핍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 예멘, 수단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국가들의 시골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구호 대상에서 배제됐다. 때로는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더 많은 경우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에 의해 배제됐다. 어떤 경우 식량배급카드를 찢거나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배급을 못 받게 했다.

2. 코로나 규제 이용한 이슬람 무장단체 활동

사하라사막 이남인 사헬지역에서 불의와 가난을 발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퍼지고 있다. 지하디스트들은 정부의 취약한 실패를 악용한다. 무장민병대들이 선전을 퍼뜨리고 대원을 모집하며 공격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배교자'들에 맞서서 지하드 전쟁을 벌일 것을 서약했다. 팬데믹은 이 배교자들 때문에 알라가 모두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 규제로 크리스천에 대한 폭력도 대체로 줄어든 것과 달리, 폭력 지수가 전년보다 30% 높아졌다. 수백 개의 나이지리아 대부분 크리스천 마을들이 무장한 풀라니족 유목민들에게 점령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은 사헬지역 중앙에 있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난민이 발생하는 진앙지라고 밝혔다. 부르키나파소의 100만 명의 주민들은 폭력과 가뭄으로 집을 두고 떠났고 수백만 명은 굶주려 있다. 1000개 이상의 마을에서 무력충돌로 크리스천들은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교회를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여파로 실직 상태의 청년들이 토지와 자원, 정치를 놓고 종족 간, 부족 간,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치안이 불안정한 주들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이 섞여 있고, 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와 무기밀매도 만연해 있다. 크리스천들은 봉쇄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3. 전체주의·권위주의적 정부의 감시와 규제 합법화

중국은 코로나19를 결정적으로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9700만 명의 중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엄청난 규제였다. 감시가 집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얼굴까지 스캔해서 공공보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5억 7000만 개로 추산되는 중국의 CCTV 카메라들 중에서 수백 개가 얼굴인식 기능을 갖고 경찰서와 지역당국에 연결된다. 중국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SCS)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는 결국 공공영역에서 정부에 반하거나 공산주의 신조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난성과 장시성의 보고들에 의하면 그러한 카메라들이 이미 정부가 허가한 모든 종교시설에 설치됐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CCTV 카메라 옆에 설치된다. 이것은 공안국에 연결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다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종교사무국은 그 지역의 모든 가정교회들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통제에 힘입어 지방 공무원들은 건강관련 앱들을 사회신용 포인트들과 통합하기 원한다. 우려하던 대로 사회신용들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종교와 연결됐다.

산시성, 허난성, 장시성, 산둥성과 그밖에 다른 지방들에서 공산당 당국자들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물들을 시진핑 사진들로 대체하기를 거부하면 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복지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크리스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공산당이 아닌 하나님에게 식량을 구하라고 말했다.

점점 더 삼자교회와 미등록 가정교회 모두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자료들과 교회재산을 압수당하고 있다. 교회 급습, 벌금 부과, 교회 지도자 체포도 증가하고 있다.

4. 다수종교를 정체성으로 하는 민족주의 증가

힌두 민족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선전·선동)의 압력을 일상적으로 받는다. 한 힌두교 사원은 바브리 모스크 땅에 세워지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이 모스크가 힌두교 주신의 7번째 화신인 라마의 출생지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힌두교 폭도들이 1992년에 이 모스크를 파괴했고, 모디 수상은 이곳에 힌두교 사원을 건축하는 것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두 번째 임기에 이 사원 건설은 그의 민족주의 지지기반을 위한 하나의 큰 성공이 됐다. "인도인이 되려면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폭도들이 계속해서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괴롭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힌두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수백만 명은 접촉활동을 추적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두려워한다. 아로기야 세투(Aarogya Setu)와 같은 앱은 숨어 들어가는 기능(function creep)이 있다. 또 다른 앱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나이, 성별, 인종을 예측할 수 있다. 인도의 데이터보호법은 감시를 다루지 않는다. 이 법은 정부가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심지어 국가안보 또는 범죄조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동의하도록 용인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인도는 해외기금이 크리스천 병원이나 학교 및 교회 기관들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2020년 7월, 비잔틴 시대를 대표하는 최대의 성당인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을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변경했다. 덜 알려졌지만 한 달 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회인 코라(Chora)교회 또한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뀌었다.

북부 이라크에서 터키는 쿠르드 노동당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 2020년에 그러한 공격들의 결과로 최소한 25개 크리스천 마을들에서 주민들이 떠나야 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지배하는 동안 니네베 평원과 모술로 피난했다가 도훅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결국 터키의 공격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제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온 크리스천들에게는 치안뿐만 아니라 생계가 주요문제로 남아 있다.

▲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잃은 콜롬비아의 다니엘라 가족.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터키가 시리아 다른 지역에서 난민들을 북동부 시리아로 다시 들어가게 해, 그 지역 인구분포가 바뀌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쿠르드족 크리스천들이 취약해졌다. 2019년 10월 터키의 공습과 폭격은 터키군이 시리아 이슬람 용병들과 함께 한 것으로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5. 중앙·라틴아메리카 범죄 단체 활동 강화

멕시코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 때문에 국가·지역 기관들이 조직화된 범죄를 다루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4개 지역에 걸쳐 마약밀매 단체들이 자체적인 코로나19 관련 통행금지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도전하는 가톨릭 주교들과 사제들, 개신교 목사들은 갈취와 잠복습격, 강도질, 총격을 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식량,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하는 동안 그 공백을 많은 마약밀매 그룹들이 메우면서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자본을 구축했다. 게레로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방역 격리기간 동안 종교의식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들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사제들을 위협했다.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들과 준군사조직들이 시골지방을 지배하는 여러 곳에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마을의 입구와 출구에서 경비를 서게 했다. 이는 목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곳은 팬데믹 이전에도 불법단체들이 지배한 지역들이다. 엘살바도르에서 MS13과 같은 갱단은 강간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에 개신교 목사들의 딸을 강간하는 것을 목회자 가정 파괴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보고들이 있다.

반면, 수단은 배교(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것)에 대한 사형죄 적용을 폐지했다. 새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슬람 샤리아법을 법의 근본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라크는, ISIS로부터 모술을 탈환한 2017년 이후로, 젊은 무슬림 자원봉사자들이 파괴된 교회들과 주택들의 잔해를 청소하면서 모술을 떠난 크리스천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도 이라크의 역사적 뿌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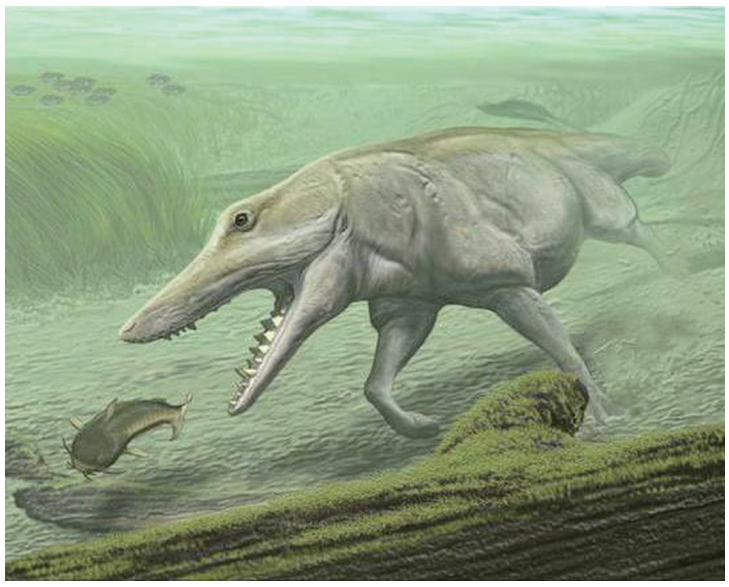
기획 | 창조 이야기 (49) – 진화론의 10가지 거짓말 뒤집기 (2.끝)

인간과 침팬지의 98% 유전적 공통 주장은 '거짓말'

미국 창조연구소의 브라이언 박사는 최근 진화론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적했다. 진화론에 대한 10가지 거짓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정이 순전히 초자연적인 창조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6.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DNA의 변화는 진화의 진행을 보여준다?

시카고 대학교의 리처드 렌스키(Richard Lenski) 박사의 유명한 대장균 육종 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진화를 관찰하기 위해 고안됐다.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유명한 실험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진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5만 세대가 지난 후에도 대장균은 여전히 대장균만을 생산한다. 이 실험에서 진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돌연변이로 인해 일부 대장균은 조절장치를 잃어버리며 더 효과적인 구연산 염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손실로 인해 발생한 돌연변이가 세균 이외의 더 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발전된 적은 없다. 이와 동일한 접근으로 어떤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분자로부터 인간까지의 진화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독감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독감에만 맞서고 있다.



▲ 진화론은 물속에서 2분밖에 있지 못하고, 다리가 달린 파키세투스를 고래의 조상으로 가르친다. 출처: theglobeandmail.com 캡처

7. 자연선택이 생물들의 외형을 변화시킨다?

진화론자들은 생물의 다양한 특성을 갖추는 과정을 설명할 때 환경적 압력을 통한 자연선택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공기의 성질은 새의 깃털이 공기 저항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자들은 동식물에서 자연선택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이나 기관이 생성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8. 고래 화석은 진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박물관에서 파키세투스(Pakicetus)가 고래 조상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2001년에 지느러미가 아닌 다리가 달린 전신의 파키세투스 화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이 가짜 표본을 계속해서 전시한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걷는 포유류가 고래로 진화했다고 가르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래 조상들이 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 "엉덩이 뼈"가 쓸모없는 흔적기관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엉덩이 뼈는 수중 교미에 필수적임을 알았다.

9. 원숭이-인간 화석은 인류 진화를 증명한다?

도널드 요한슨(Donald Johanson)은 자신이 발견한 화석인 '루시(Lucy)'를 인간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팀 화이트(Tim White)는 자신의 발견을 통해 "인간의 조상은 루시가 아닌 아르디(Ardi)"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박물관에는 (전이) 화석에 대한 증거로 인간의 발과 함께 루시가 전시되어 있다. 2018년에 '어린' 루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엄지발가락이 굽어 있고 원숭이를 닮았다. 루시는 멸종된 원숭이일 뿐이지 인간을 닮은 부분이 없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조상으로 발표되었던 모든 화석들을 멸종된 원숭이, 멸종된 인간, 확인할 수 없는 것 또는 사기품으로 분류했다. 또한 일부 진화론적 전문가들 역시 발표된 모든 것을 인간 조상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10. 인간과 침팬지는 98%의 유전적 공통점을 공유한다?

침팬지는 진화론적으로 원숭이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것으로 여기는, 쉽게 말해서 동물계 안에서 사람과 친인척 관계이다. 진화의 세속적인 시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침팬지와 인간 게놈은 적어도 98% 유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침팬지는 인간보다 6%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나란히 서열을 비교할 때 그 유사성은 85%를 넘지 않는다. 또한 유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돌연변이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98% 유사성이란 결과는 가짜다. [GPNEWS]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선교 통신

나를 핍박하는 시아버지가 저처럼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최근 네팔에서 불교도에게 핍박받는 수리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네팔의 수리타는 힌두교 신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질병과 네 살배기 아들의 원인 모를 소화 문제를 놓고, 불교 승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주술사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한 기독교인이 수리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와 아들을 위해 기도해준 뒤, 두 사람 모두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수리타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료했다고 확신했고, 네팔 카트만두 남부에 있는 한 교회에 아들과 함께 출석하기 시작했다. 두 달 뒤, 수리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병고침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죄를 용서받는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수리타의 남편 카말은 불교 신자였지만, 아내와 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말의 아버지 비카쉬는 며느리와 손자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위협했다. 시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수리타는 시아버지의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다.

몇 개월간의 언어 폭력은 마침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비카쉬는 술에 취해 화를 내며 수리타의 방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성경을 찾았다. 성경을 찾은 비카쉬는 성경책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분 동안 수리타를 내리친 성경책은 다 찢어지고 말았다. 수리타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생각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남편 카말은 부모님 앞에서 아내가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고 말하며 아내와 함께 마을을 떠나겠다고 했다. 이렇게 부모에게 대담하게 맞서는 행동은 네팔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다. 카말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았다.

▲ 네팔의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 복음기도신문

살바 목사의 도움으로 시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도시로 이사했지만 비카쉬는 두 번이나 만취해서 수리타를 때리려고 했다. 수리타는 "시아버지는 더 포악해졌다. 최근에도 술을 잔뜩 마시고는 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찾아가 며느리를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며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최근 샬바 목사는 비카쉬를 방문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듯한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었다. 목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했지만, 비카쉬는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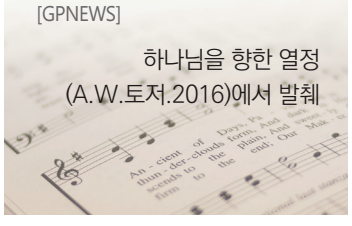
수리타는 최근 시아버지에게 술을 끊으라고 강권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수리타는 시아버지가 자신처럼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며 언젠가는 그 초대에 응해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GPNEWS]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집중하라

젊었을 때 나는 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읽고 공부하려고 애썼다. 전기, 심리학, 역사, 시, 철학 그리고 신학까지 읽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런 주제들에는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오직 그분을 아는 일에 열정이 집중되었다. 오늘날의 내가 있게 된 것은 결국 그 분을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교회의 위대한 찬송가의 가치를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냈고, 그 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시로 표현했다. 오래되고 위대한 찬송가 하나를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내게는 거의 없다. [GPNEWS]

하나님을 향한 열정
(A.W.토저.2016)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방황하던 자, 기도하는 성전을 꿈꾸다

기도로 그 날을 준비하는 **홍희경** 권사(아야진 교회)

ⓒ 복음기도신문

강원도 고성 바닷가 부근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아담한 집,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공간이 있었다. 아야진 교회였다. 자녀들과 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로 그 날을 준비하는 홍희경 권사를 만났다. 환한 미소 속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의 고통을 거쳐온 듯한 홍 권사의 삶으로 들어가 본다.

-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는 믿음이라기보다 재밌고 좋아서 교회에 갔어요. 어릴 때, 우리 가정은 유복하고 화목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하고 그게 발단이 되어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언어폭력도 심해지면서 거의 약으로 사셨어요. 잘 주무시지도 못하는 엄마를 위해 아버지는 카페를 차려주셨어요. 마음을 다른 데 두게 하려고요. 그러나 엄마는 오히려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저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을 하게 됐어요."

폭행당한 피해자에서 방황의 길로

-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강남과 이태원을 배회하면서 놀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친오빠가 24살에 사고로 죽은 뒤에는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바쁘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같이 술 마시고 마약하는 친구들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더 방황을 하게 됐죠.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마약 중독 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러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마음을 잡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그 남자는 폭력이 너무 심했고 경마 중독이었어요. 돈 떨어지면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 도망을 나와 고모가 원장으로 있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고모가 도움이 돼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때가 25살이었어요."

- 네, 20대 초반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네요. 새 인생은 어땠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고모가 알려주는 대로 십일조도 드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사도 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고성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그것도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았어요.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소가 고성에 있는 구멍가게였어요. 엄마는 매일 술을 드셨는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고성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가 28살 정도였어요."

- 그렇게 고성에 터를 잡게 되셨군요. 고성에서 생활은 어땠나요?

"엄마는 부대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저는 고모가 미용을 배워보라고 권하셔서 미용을 하게 됐죠. 미용을 해서 봉사하고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폭언을 다시 들으면서 힘든 생활이 또 시작됐어요. 제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후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제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결혼하겠냐고 물었죠. 제 사정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시댁과 우리 어머니도 이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남편이 그냥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먼저 살림을 꾸려 살다가 첫아이를 낳고 2년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뜨거운 신앙도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 네, 이제 안정이 좀 되셨겠네요.

"아니요. 결혼을 하고부터 또 힘든 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살림들을 부쉈어요. 제가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혼자 전도하러 다니면서 열매도 많았어요. 그러나 힘든 생활을 못 견디고 다시 술과 담배를 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 둘을 임신중독으로 7개월 만에 낳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아팠지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돌봐줬죠. 그 뒤로 주초문제도 해결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됐어요."

-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죠?

"사실 저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전부터 신학 공부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죠. 고모네 기도원에서 강대상을 청소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여자 전도사님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당시 깡패였다가 목사가 된 부흥사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도 주님이 이렇게 쓰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조건이 안 돼 포기했죠. 성서신학원은 졸업장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중 복음학교를 알게 돼 참석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존재적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됐고, 그때 저처럼 방황하고 있는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제공: 홍희경 권사

-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쉽지 않으셨죠?

"저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에요. 덕분에 그런 환경에 있는 다음세대를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부모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자는 아이들 깨워서 양말 신기고 차에 태워 교회에 데려올 정도로 다음세대를 향한 열정을 갖게됐어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오게 하자는 마음 하나였어요. 중학생 아이들은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곤 해요. 찾아가면 "선생님, 가면 맥주 줘요?"라고 당돌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탕 하나 안줬다고 불교를 믿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섬겼어요."

- 방황하는 다음세대의 마음을 잘 아셔서 은혜가 넘쳤겠네요. 이후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제가 복음학교 참석했던 게 신학원 방학 때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선교단체의 신앙훈련을 받게 하면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학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풀어 설명해주니 복음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았어요. 그리고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해 서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 들리는 모든 말을 노트에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러는 동안 주님은 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중보기도학교와 선교관학교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 만나고 기도 사명의 꿈을 꾸다

-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셨나요?

"그때 강릉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모여 화요일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52 기도도 했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한두 시간 기도하기 위해 3시간씩 이동해야 했어요. 그러다 고성에 있는 동명교회에서 느헤미야52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벌써 5년이 됐네요. 느헤미야52 기도는 열방의 여러 상황들을 놓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외에 기도 아웃리치를 나갔을 때는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곳에서는 직장과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 그 어려운 기도 시간을 어떻게 5년간 이어오셨는지 놀랍네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주일에 교회를 섬겼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7시에 밥을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차량 운행, 예배, 성가대, 찬양대…. 그때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 이런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열심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저와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밤새 느헤미야52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간신히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반대에 부딪치면서 주님이 저를 다뤄주셨어요."

-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학원도 가고 교회도 섬긴 게 사실이었지만 100%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임을 받기 원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집이 잘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가정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2)

결혼 목걸이용 은전 열 닢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는다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세 가지의 감동적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다. 스스로 "난 바리새인이야. 난 신학자야. 난 율법선생이야."라고 말하며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눅 15:4)

당시 유대 사회는 양을 자기 자식을 키우듯,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지어가며 키웠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은 하나를 그냥 채운 정도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뻐할만한 일이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진리에 대입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셨다. 예레미야 5장에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인 한 사람은 수의 개념을 뛰어넘어 주님의 가슴에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노아, 다니엘, 다윗 같은 의인이 99명이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는가? 그러나 하늘나라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너', 즉 '우리'가 안 보이면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일러스트=이예원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을 숫자와 능력으로 계산하는 우리의 저주받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 한 사람의 자리는 숫자로 메워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감동 없는 메마른 눈으로 주님을 쳐다본다. 이때 주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눅 15:8)

당시에 여인에게 은전 열 닢은 갖기 쉬운 금액이 아니었다. 또 은전 열 닢은 결혼약조로 목걸이에 거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방을 쓸고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눅 15:9)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겐 별 것 아니지만 잃어버렸던 여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

주님은 곧바로 영적인 진리를 대입시키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고 수에 치지도 않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큰 감동이 없자 주님은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2018년 4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야긴과보아스 JAKIN & BOAZ

복음 마스크 출시

고퀄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고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영원간병회에서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영원간병회는
열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로
전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1-271-0171, 010-7227-2560
협회장 김명숙 권사
✉ sejy22@nate.com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믿음의 삶

칼로리 계산 멈추자, 기쁨의 식사시간

6개월 동안 합숙으로 하는 신앙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을 준비하는 동안 주변 지인들은 살이 쫙 빠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며 적응을 하면서 먹는 양이 늘었다.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팠고, 그럴수록 살이 찔 것 같다는 위기감에 혼자 두려워했다. 먹는 것에 욕심부리는 나를 억제하며 내 안의 탐심과 싸웠다. 어느 날 숙소에서 교제를 하다가 음식 이야기가 나왔다. 뼈를 맞는 것 같은 말을 들었다. 그 말을 통해 '뭐가 문제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 이후 기도 시간에 나로서는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는 이 영역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순간이었다.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됐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 생명은 이제 이런 생명이라고 알려주셨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랑받기 위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일러스트=고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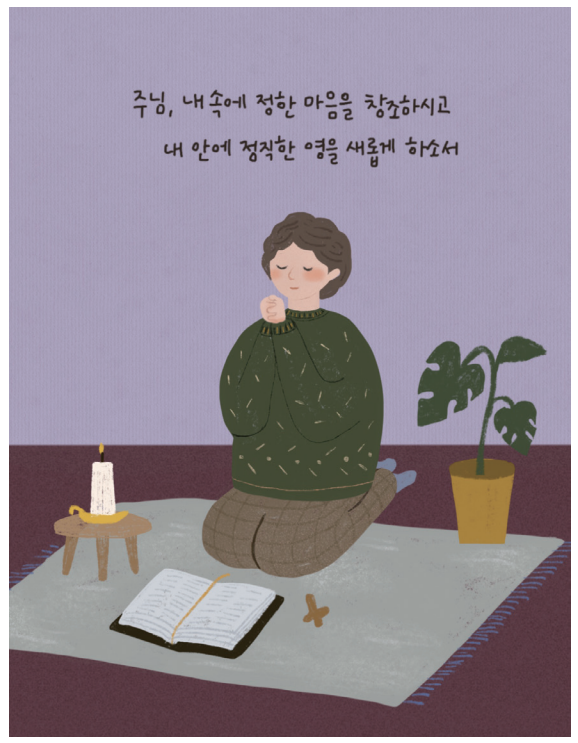
기쁨과 감사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주었다. 선하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았다. "지현아, 너 매일 칼로리 계산하며 따지고 그랬지?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내가 가장 완전하게 줄 거야." 세상가치로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이 따라가던 이지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취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셨다.

그날 밤 가장 행복하게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을 먹는 게 떨렸다. 차라리 금식하고 싶었을 정도로 두려웠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 "지현아, 두려워 마! 넌 예배하는 생명이야. 그 생명 그대로 밥 먹어라."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먹은 아침 식사 메뉴는 잊을 수 없다. 탄수화물, 지방, 야채를 골고루 주셨고, 적게 먹어 뿌듯하고 많이 먹어서 배부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과 식사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주님, 저 이제 떨지 않아요. 제가 먹는 게 아니니까요. 저의 초점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남들이 보면 작은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나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샘플을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 가운데 만들어 갔다. 치열한 전쟁이었으나 이 승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전쟁 가운데 평온케 하셨다. 이기는 전쟁으로 초청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GPNEWS]

이지현

그림 묵상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 자기 내면에 '정한 마음'이 없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한순간에 여인에게로 향하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또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범죄를 은폐하려고 충신을 죽였다. 우리에겐 없다. 하나님께 대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그래서 창조가 필요하다. 부패한 마음을 고쳐서 정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생명은 가능하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됐다. 오직 믿음으로. [GP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북한 상황, 여전히 10년 전 수준… 감시초소만 늘어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주민들의 상황이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뚜렷한 변화는 새로 설치된 철조망과 국경초소의 증가뿐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매년 북중 국경 지역을 찾아 사진을 촬영해온 강동완 교수(동아대학교)는 탈북민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다'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 전 고향을 떠나 온 탈북 여성이나 일 년 전 탈북해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도 사진 속 북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북중 국경 마을인 양강도 혜산시가 고향인 탈북 여성 김혜영(가명) 씨는 탈북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사진 속에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부터 이동 수단, 주거환경, 전력 사정 등 모든 면에서 나아진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경 지역은 중국과 맞닿아 있어 내륙지방보다 낫겠지만, 지난 세월 동안 발전이라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그래도 김일성 주석 당시에는 괜찮았다."며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도 뭐가 발전됐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국경경비 강화이다. CCTV와 철조망은 국경을 따라 더 길게 설치됐고, 초소는 곳곳에 더 많이 세워졌다. 이에 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들이 이 사진들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실생활이 바깥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고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북중 국경 지역의 모습을 앞으로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PNEWS]

북, 아동 노동 매우 심각… 절벽 위로 달리는 트럭 짐칸에 실려 동원돼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은 일상적인 농촌 동원, 일요일에도 노동에 동원되는 등 아동 노동이 매우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매년 북중 국경 지역을 찾아 사진을 촬영해온 강동완 교수(동아대학교)의 카메라에 심각한 아동 노동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강 교수는 사진 속 북한 어린이들의 삶에는 고단함이 묻어있다면서 파란 트럭의 짐칸에 빼곡히 실려 아슬아슬한 산길을 내려가는 북한 어린이들의 농촌 동원 사진을 소개했다. 그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진이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높은 곳을 촬영했다. 북한의 허름한 트럭 뒤에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름 아닌 어린이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절벽 위로 차가 다니고 있었는데, 세계 어디를 봐도 어린이들을 그렇게 트럭에 태워 동원 현장으로 가는 모습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 강동완 교수가 촬영한 모래를 나르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북한 어린이.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이에 2019년까지 북중 국경 지역에 거주하다 탈북한 한서진(가명) 씨는 북한에서 어린 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동원되는 건 일상이라고 말했다.

어린 학생들은 농촌 일손 돕기에만 동원되는 게 아니다. 강 교수는 무거운 짐에 눌려 넘어진 어린이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북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마침 많은 어린이들이 강변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강변의 모래를 담아 옮기는 작업인데,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포대자루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고 만 장면을 제가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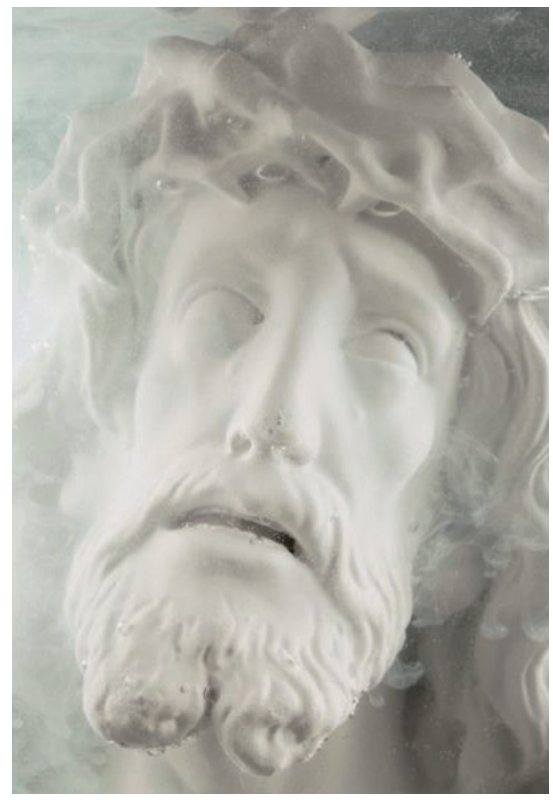
안드레아 세라뇨의 〈오줌 그리스도〉

무엇이 신성모독일까?

불그스레하게 빛나는 바탕에 흐릿한 십자가가 놓여 있다. 가톨릭 사진작가 안드레아 세라뇨(Andres Serrano)의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되고 난 뒤, 뉴욕 주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상원의원 알폰소 다마토(Alfonso D'Amato)는 세라뇨의 작품이 실린 도록(圖錄)을 청중 앞에서 박박 찢어버렸다. 이런 부도덕한 예술가에게 정부의 예술 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상원의원 제시 헬름스(Jesse Helms)도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세라뇨는 항상 종교적 도상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고,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십자가의 배경이었다. 그것은 바로 작가의 소변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세라뇨가 제목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짓지 않았다면 논쟁을 피할 수도 있었다. 작품만 보면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담근 액체가 무엇인지를 굳이 알리려 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대중들의 공분을 산 작가는 의외로 자신은 결코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문당했다고 쓰여 있다. 십자가는 매우 추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십자가를 우리식으로 미화하기에 급급하다. 실제 십자가 사건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사회는 종교 공예품을 믿음의 대용품인양 착각하고 쉽게 거래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스러움을 더럽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류의 물질적이고 감상적인 예배를 추방하고 싶다." "오줌이 정말 더러운가? 오줌을 더럽다고 가르치는 관습이 모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리고 2년 뒤, 이번에는 순수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우유 속에 예수님의 두상을 넣은 〈하얀 그리스도〉를 발표했다. 세라뇨의 두 작품을 보며 마음속에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다.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소변일까. 그 처절한 사랑을 잊고 사는 나의 일상일까. 세라뇨의 작품이 모욕일까. 곳곳에 걸어 놓은 십자가를 당연시하는 나의 무감각한 시선이 모욕일까. [GPNEWS]



▲ 작품설명: 안드레아 세라뇨, 〈오줌 그리스도(Piss Christ)〉, 1987 / 〈하얀 그리스도(White Christ)〉, 1989

이상윤 미술평론가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정치적 올바름(PC), 깨시민주의… 전체주의 사회 낳는다

▲ 미국 뉴욕 뉴욕타임스 건물. 출처: unsplash

뉴욕타임스가 자사의 30년 베테랑 과학전문기자 한 명을 해고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거(2019년) 고등학생들과 함께 간 수학여행에서 '깜둥이(nigger, 니거)'란 말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한 정황을 알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맥락은 이렇다. 어떤 고등학생이 기자에게 "옛날에(12살 때) 친구가 '니거'가 담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최근 발견돼서 정학 조치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래서 기자는 그 영상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 학생에게 친구가 그 '니거'를 누군가를 상대로 썼는지, 아니면 그냥 랩을 하거나 뭘 읽으면서 쓴 건지 물었다. 그러면서 '니거'란 단어를 사용했다.

기자는 누구를 상대로 이 단어를 쓴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 학생이 묻는 질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하기 위해 질문하며 쓴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30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더 황당한 건 뉴욕타임스가 해고 조치를 하게 된 과정이다. 편집실과 간부진은 기자의 해명을 듣고 맥락을 이해하고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니콜 하나존스 기자(1619 기획보도의 주인공, 미국의 건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난 1620년의 메이플라워호를 탄 개척자들이 아니라 1619년 미국 땅을 밟은 흑인 노예들에게 있다고 주장한 기획기사. 편집자 주)가 편집실에 달려와서 그 기자를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조사위를 꾸려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겁박했다. 그러자 간부진은 즉시 기자를 해고했다.

기자를 해고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자사가 "그 의도에 상관없이 '니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게 말이 되나? 어떤 단어를 그 단어를 쓰는 의도와 상관없이 쓸 수 없다고? 그것도 언론사가?

그렇다면 정말 이 단어를 쓰는 기자가 뉴욕타임스에 없거나 쓰면 징계를 받을까? 전혀 아니다. 사실 불과 3년 전인 2019년에 니콜 하나존스 기자 본인도 썼다.

기자는 해고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있다면서 회사와 과거 그 학생들에게 싹싹 빌며 거듭 사과하는 편지를 남겼다. 정말 미안했던 것일까? 아님 그렇게 해야 다른 어디라도 다시 취직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 어떤 경우이던 참 불쌍하기 짝이 없다.

1619,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Wokeism(깨시민주의) 등이 펼쳐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의 한 장면이다. [GPNEWS]

조평세(트루스포럼 연구위원)

▲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한 기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니콜 하나존스 기자.

The Republican strategist Lee Atwater, in an infamous 1981 interview, made the strategy plain: "You start out in 1954 by saying, 'Nigger, nigger, nigger.' By 1968 you can't say 'nigger' — that hurts you, backfires. So you say stuff like, uh, 'forced busing,' 'states' rights' and all that stuff."

▲ 니콜 하나존스 기자가 2019년에 쓴 기사. 자신도 인종차별적 단어를 사용했지만, 누구에게도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1. 27 ~ 2. 17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효 김다경 김득기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화평 노은옥 문미현 박경희 박상기 박성규 박신희 안민자 안수경 우 석 윤경석 은종숙 이미영 이영옥 이은주 이인열 이종훈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옥 최정미 하 원 한승리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오예그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헵시바교회 주소망교회 참좋았더라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